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110~120周年
標語
共に生きる
いのちの天幕を
広げよう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4年8月1日 (木) 第840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部100円)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発行人/ 梁榮友・編集人/ 鄭守煥
印刷所 靑丘文化社

<2024년 재일대한기독교회·일본기독교단 평화 메시지>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양 영 우
일본기독교단 총회회장 쿠모시카리 도시미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사야26:12-13)

눈물도 마르게 하는 공포가 지금도 가자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랑과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땅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 아닌 다른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번이고 주 예수님께로 돌아가 “오직 주의 이름만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여기에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하여>

근대 이후 식민주의와 자본주의 지배의 근원이 응축된 팔레스타인에서 적나라한 공포와 잔혹함이 매일같이 매스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우리 앞에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군은 서방 국가들의 물리적, 심리적 지원을 배경으로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있으며, 가자지구 사람들은 밤낮으로 공포에 휩싸여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 홀로코스트의 지옥에서 목숨을 잃은 유대인, 차별받은 사람들, 장애인들의 영혼과 동시에 현재 전 세계 억압받는 사람들의 영혼 또한 끔찍한 대량학살 속에서 다시 한 번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같은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전 세계의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들도 상처받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팔레스타인에 하루빨리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한일 역사에 대하여>

1910년 한일합병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반도에서 일본의 군수공장, 광산, 탄광에 노동력으로 강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비석이 일본 각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1월 29일, 군마현(群馬県) 지사는 많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群馬県立公園 ‘군마노모리(群馬の森)’ 에 세워진 ‘기억과 반성 그리고 우정’ 이라고 새겨진 조선인 노동자 위령비를 철거하였습니다. 재특회(在特会)를 비

롯한 우익 시민단체의 잘못된 역사 선전을 바탕으로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등 왜곡된 역사 인식에 행정과 정부가 동조하면서 일본 각지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은 이러한 잘못과 악의에 찬 한일 역사를 계승하지 않으며, 한반도와 일본, 동북아시아 전체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사랑과 화해와 조화 속에서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시아의 평화에 대하여>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일본의 방위비는 43兆円이라는 사상 초유의 금액이 책정되었고, 2022년 영국, 이탈리아와 전투기 개발에 합의한 결과, 2024년 3월에는 국회 심의 없이 제3국에 최신형 전투기를 수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일본은 거대한 군사국가를 지향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질서 유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과거 일본이 침략했던 지역의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사태를 염두에 둔 중국 견제로서의 美日 군사동맹 강화는 한반도와 西南제도를 전투지역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2016년 이후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자위대 기지의 증강과 새로운 기지 건설이 계속되고 있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평화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몇 번이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韓日 시민과 아시아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원전 의존도 탈피에 대하여>

도쿄(東京) 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어 2024년도에 54,700톤의 오염수가 투기될 예정이며, 트리튬의 총량은 약 14兆 벵크렐에 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노토(能登)반도 지진은 진원지 근처에 많은 원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원전 피해를 우려했다. 다행히 원전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피 경로에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1년 도쿄(東京) 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붕괴 및 폭발로 인해 해양으로 유출된 희석되지 않은 방사성 액체 폐기물은 세슘137이며 15,000兆 벵크렐로, 연간 관리 목표치인 2,200億 벵크렐의 약 7万年 분량입니다. 이 방사성 물질은 지금도 바다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 국토에서 원전만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없으며,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폐로(廢炉)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年8月1日

서남지방회

하기수양회 개최

—KCCJ의 존재 이유를 찾아서—

서남지방의 전통을 잇는 하기수양회가 筑後川温泉・花景色호텔에서 7월14~15일 교육부, 여성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열리지 못한 온천에서의 교제와 배움의 축제가 되었다. (6교회 34명) 강사 김성제목사는 KCCJ의 역사적으로 본 존재이유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전했다. 우리들 재일 2-3-4세, 일본인, 신1세가 모여 다양성을 이루어 「브랜드교회」를 형성하고 있는것은 하나님의 기류자로서의 모습이라고 격려했다.

또 KCCJ의 설립경위에는 「앞으로 일본에 올 수 밖에 없는 식민지 조선반도의 기류자를 맞이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재일본 조선기독교가 독자적인 교회 형성을 할려고 할 때 캐나다선교사 L.L.Young의 불가사의한 선교 활동을 강사는 소개했다. 참가자에게는 「브랜드교회」가 다민족 다문화 시대에 기류자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신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다. 교류회에서의 재일이 된 자들의 이야기는 밤새도록 하여도 끝나지 않는 나그네 타령으로 서로 이해를 깊게했다. (보고:교육부장 주문홍)



관동여성회

헌신예배 동경교회에서 개최

권초혜장로의 간증 통해 큰 은혜 받아

2024년 6월30일(주일) 오후, 관동지방여성연합회가 헌신예배를 동경교회에서 드렸다.

관동지방회 여성부장 김근식목사(한사랑교회)의 설교 「연합·헌신·예배」(레위기1:3-9)가 있는 후, 권초혜장로님(후나바시교회)의 간증을 통하여 신앙의 선배의 간증을 듣고 참석자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다.

관동지방여성연합회가 각 교회의 여성 신도들께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봉사할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보고: 이은주)



관서한국Y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민속예술과 창립하여 초중학교에 파견

7월 15일, 오사카 교회에서 관서 한국 YMCA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관서한국 YMCA는 1974년 7월 오사카 교회에서 개최예배를 드리면서 그 여정을 시작했다.

1973년 서울YMCA는 제일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관서 지역에 한국YMCA를 건립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치권목사를 오사카에 파송하였고, 이치권목사는 당시 관서 지방회와 KCC의 협조를 얻어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YMCA의 이사회를 조직하기 위해 힘썼다.

초대 주사가 된 김수남장로는 제일 동포의 젊은이들이 출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한국 민속예술학과를 설립하였으며, 그곳에서 배운 제자들이 오사카시의 공립 초중학교의 민족 학급 강사로 활동하는 등 간사이 지방의 민족 교육에 크게 기여했다. 1980년 9월에는 오사카 다마추쿠리(玉造)에 회관을 매입하고, 이를 계기로 활동을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념식은 1부 감사예배와 2부 축하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예배는 관서지방회 회장 박영자 목사의 기도와 양영우 총회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또한 관서지방회 성가대 연합회의 특별 찬양, 오사카 교회 김유향권사 오다미집사에 의한 오르간과 피아노의 축하 연주, 예배 후 이어진 관서한국 YMCA 한국민속예술과의 풍물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2부 축하회에서는 제일본한국YMCA 오영석 이사장, 서울 YMCA 김인복 이사장, 일본YMCA 동맹 타구치즈도무(田口務) 총주사, 오사카YMCA 하세가와 요이치(長谷川洋一) 부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금번 50주년대회에는 관서한국YMCA관계자, 서울YMCA, 일본YMCA 동맹 오사카YMCA와 관서지방회, 서부지방회의 교역자, 장로, 신도 등 170명이 참석했다.

1년 전, 관서한국 YMCA(대표이사: 전성삼목사)는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위원장 김중현)를 구성하고 준비해 왔다, 금번 관서한국 YMCA 50주년 기념 행사가 많은 분들의 협력으로 의미 있고 성대하게 거행될 수 있었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 김성원장로)



韓日対照讃頌歌販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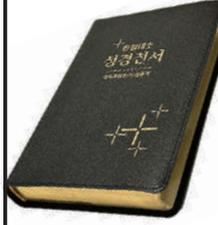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2,500円 (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 価格: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武庫川教会

임병로 명예장로 소천 2세장로로서 20년간 교회 봉사



지난 2024년 7월 12일, 武庫川교회 임병로 명예장로가 96세를 일기로 이 세상에서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동일 12일에 전야식을, 13일에 고별식을 양영우 담임목사의 집례로 武庫川교회에서 거행하였다.

故·임병로 명예장로는 1927년 제일한 국민 2세로서 日本 大阪에서 출생하여 1946년 4월 大阪교회에서 박명준목사에게 학습을 받고, 같은 해 11월에 세례를 받았으며, 1975년 武庫川교회에서 집사로 임직, 1979년에 장로 장립을 받았다. 1998년 은퇴와 함께 명예장로로 추대되었다.

관동여성회

신 행사로서 「산책」 거행 신주쿠교엔 교류회에 18명 참가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 2024년도 회원의 친목과 단결을 위해 새로운 행사를 신설했다. 「산책」이라 이름 붙였다.

5월16일 (목) 11시반에 신주쿠교엔 앞에서 4교회 18명이 모였다. 첫 시도였지만 많은 분들의 참가에 감사드린다.

온실을 돌아보고, 잔디에 앉아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후에 또 장미 정원까지 구경하고 2시반에 해산했다. (보고 : 이은주)



大阪教会

창립103주년 감사예배 개최 취임식과 추대식도 동시에

2024년 5월12일은 오사카교회 창립10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 어린이를 포함한 전 교우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100주년 행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2년이나 미루어졌고, 작년에 이어 창립기념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정연원 담임목사는 “고난을 넘어 희망으로 가는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고, 다함께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세기를 기약했다.

오후3시 거행된 임직식은, 총회장 양영우목사의 ‘충성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어 제75회 관서지방회 정기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한선영목사의 부목사 취임식, 전도사 인허를 받은 정동호전도사의 취임식과 강해자, 송승미 권사취임식, 송영희, 안희자, 박진숙 명예권사 및 김영희, 조예호, 이한주 명예집사 추대식을 함께 거행하였다.

중경총회장 김무사목사의 권면과 관서지방회 부회장 김종권목사와 전국교회여성연합회를 대표하여 김금순장로가 축사를 담당하였다.

금년 연말 정연원 담임목사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좋은 차세대 지도자가 선임될 것을 기대하며 가진 의미있는 창립기념예배와 임직식이었다. (보고 : 정연원)



在日大韓基督教会と日本基督教団との 協約締結40周年記念集会

2024年9月16日(月)

13:00~18:00

場所: 在日大韓基督教会 大阪教会

〒544-0032 大阪市生野区中川西2-5-11

申し込み: 2024年8月15日(水)

※詳細は各事務局に
お問合せ下さい

- 12:30 受付
- 13:00 記念礼拝
司会者: 申大永副總會長
説教者: 雲然俊美議長
聖餐式司式: 張慶泰副總會長、藤盛勇紀副議長
- 14:00 記念発題
司会者: 鄭守煥總幹事、網中彰子總幹事
在日韓国基督教会館名誉館長 李清一牧師
東京純心大学教授 佐野通夫氏
- 15:00 休憩 茶話会
- 16:00 ミニ発題 次世代による発題
- 17:30 閉会礼拝 司式者: 黒田若雄書記
説教者: 梁榮友總會長

특별기고 임병로 명예장로의 추억,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

무코가와교회 장로 임영재

아버지 임병로 명예장로는 7월 12일 새벽 96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가셨고, 제가 주치의로서 임종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것을 적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재일한국인 2세로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제(旧制) 중학교 시절에는 삼촌을 따라서 도쿄에 살다가, 1945년 3월 도쿄 대공습을 겪었습니다. 당시 토라노몬(虎ノ門)에 살고 있었는데, B29의 소이탄 폭격으로 주변이 불 바다가 되어 하숙집 2층에서 이불을 안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모두 언덕 아래로 피난했지만 아버지는 언덕 위로 피난했다고 합니다.

언덕 위에는 미국 총영사관이 있어 B29도 그곳은 폭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무사했고, 언덕 아래로 피난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살아서 오사카로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오사카 대공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불길 속을 이리 저리로 피하다녔습니다. 도쿄 대공습과 오사카 대공습을 모두 경험한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불타버린 오사카의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오사카 교회의 노방 전도대를 만나 신앙의 길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빵을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몰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집안에 알려져서 인연도 끊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와 누나가 교회에 가지 말라고 아무리 때리고 야단을 쳐도 그때만큼은 효성이 지극한 아버지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와 누나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도 크리스천이 되어 집안에서 함께 인연이 끊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후, 고모는 오사카 교회에서 신앙을 잘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통해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노방 전도대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고, 우리 형제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어떤 것을 막론하고 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1969년, 양친과 4형제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전쟁으로 인해 청춘을 빼앗기고, 교통사고 후유증과 큰 병을 여러 번 앓는 등 고통이 많은 삶이었다.

만약 평화로운 세상에 태어나 외국인이 아닌, 조국에서 태어났다면 분명 다른 삶



2013년, 생일 때에 가족들이 집합

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삶이 가장 좋은 삶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교회를 통해 결혼도 하고, 자녀와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으로 장로로서 신앙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주님 앞에 후회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에게 “너처럼 평화주의는 막상 환난의 때에는 통하지 않는다. 1과 1을 더하고 2로 나누는 식의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로부터 엄하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는 화가 난 적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깊은 뜻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분명히 밝혀져 있기에 아버지를 웃으면서 천국으로 배웅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선배님들이 “임병로장로, 왜 이렇게 늦게 왔소?” 라고 하시면서 웃음꽃을 피우고 계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KCCJ 2024년도 교역자/장로 수양회(zoom)●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능성은? ~교회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2024.10.14 (월·휴) 오후 1시~3시30분 (참가비무료)



©G. Rouault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속곳으로 갔는데, 달린 아이들 이외에, 장정만 해도 육십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짐승도 그들을 따랐다. (출애굽기 12 : 38)

다양한 실천에 접하면서, 신앙의 계승 가는성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십시오!

· 재일대한국교회는 작은 무리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무리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와 한국 출신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체류기간이 길어진 사람이나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목사도 일본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과 한국 교단에 소속되어 선교사로 일본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언어도 주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둘 다 가능하지만 모국어가 일본어/한국어인 사람 등 다양성의 내용도 정말 다양합니다.

· 이번 수련회에서는 교세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재일대한국교회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각각 다른 실천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을 초청했습니다. 다양한 우리 무리가 다양한 차이를 넘어 주님 안에서 일치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애써 나가는 계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회 기도	인사말씀 / 목적과 흐름 안내	13 : 00 ~
1. 발제 1	구자우목사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13 : 10 ~
2. 발제 2	이중재목사 (가와니시교회)	13 : 30 ~
3. 발제 3	박영자목사 (도요나가부흥제일교회)	13 : 50 ~
휴게		
4.	그룹 토론+마무리하기	14 : 20 ~ 15 : 30
5.	자유토론	15 : 30 ~

*수양회는 zoom로 진행됩니다. 일본어 / 한국어 통역이 있습니다.

인수 확인을 위해 QR코드나, 성함,소속교회등 정보를 메일로 kimshinya0327@yahoo.co.jp 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 재일대한국교회 교육위원회

<정정과 사과>

복음신문 2024년7월호의 일본어판에 게재된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제64회 정기대회」 기사의 신임원 명단이 틀렸습니다. 사과드리며 정정합니다. 바른 신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会长 : 宋福姬 (名古屋) 副会长 : 崔美惠子 (武庫川)
- 書記 : 高慶美 (大阪) 副書記 : 李正子 (名古屋)
- 會計 : 李敏禮 (西新井) 副會計 : 金惠珍 (川崎)
- 教育局長 : 李好子 (小倉) 宣教社会局長 : 姜志鮮 (大阪)
- 財政局長 : 李菜々 (平野) 心のケア局長 : 尹豊子 (神戸)
- 関東会長 : 李銀珠 (横浜) 中部会長 : 金恩淑 (豊橋)
- 関西会長 : 金仁姬 (京都) 西部会長 : 梁律子 (神戸)
- 西南会長 : 朴賢淑 (福岡)
- 會計監査 : 朴英遠 (品川)、俞貞惠 (武庫川)
- 顧問 : 李炫知 (神戸) 総務 : 石橋真理惠

<알림>

● 8월13일(화) ~ 16일(금), 총회 사무국은 하계 휴가로 업무를 쉽니다.